



동남아 선교 뉴스레터

통권 제67권 2013년 제1호(2013.01.31) 발행처: 동남아선교정보센터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성학관621호 ☎051-510-2551/010-3742-6302
http://www.seamission.net E-mail: seathai@hanmail.net 편집인: 조흥국

협력기관: 한아봉사회 (전화02-764-2068 팩스02-764-2069 ksmsa@chollian.net)

Newsletter of Southeast Asian Mission 67 2013 no.1

▶ 제67권 목차 ◀

1.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
2. 귀국한 베트남 해외근로자들의 고충
3. 2012년 결산보고
4. 동남아시아의 최근 상황
5. 동남아시아 관련 도서 소개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

조흥국

1. 서론

라오스와 태국은 메콩(Mekong)강을 경계로 서로 이웃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대륙 동남아시아에서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는 아라칸(Arakan) 산맥과 테나세림(Tenasserim) 산맥,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동락(Dongrak) 산맥, 라오스와 베트남 사이에는 안남(Annam) 산맥 등 높고 험준한 산맥들이 발달해 있어 그 주민들 간의 상호 접촉과 교류를 어렵게 만들어 국가들 간의 자연적인 민족·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이루어 왔다. 그에 비해 라오스와 태국 사이에는 메콩강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강은 국가간 상호 관계의 발달에 있어서 산맥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프랑스의 학자인 에르네스트 르낭은 산은 민족들의 이동을 제한하지만, 강은 민족의 이동을 유리하게 하고 민족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말한다.

라오스와 태국은 서로 민족적, 문화적으로 연결되며 비슷한 점이 많다. 두 나라의

민족들인 라오(Lao)족과 타이(Thai)족은 모두 타이(Tai)족에 속하며, 라오어와 타이어는 타이-까다이(Tai-Kadai) 어족이라는 동일한 언어적 뿌리에서 나왔다. 두 나라의 지배적인 종교는 상좌불교이다. 그래서 두 나라 사람들은 상대방 국가에 가더라도 적어도 언어 소통과 종교 생활에서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Vientiane Times*의 2003년 6월의 한 보도에 따르면, 라오스의 젊은이들 중에는 태국의 라디오 오락 프로그램을 듣거나 태국의 영화를 보거나 타이 패션으로 옷을 입는 자들이 점차 증가하며, 이들에 대한 타이어의 영향도 늘고 있었다. 나이 든 세대도 라오스 텔레비전 방송보다는 태국 방송을 선호했다. 이처럼 라오어를 희생으로 타이어를 쓰고 있는 현상에 대해 나이 든 라오인들은 그것을 라오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갉아먹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려했다.

라오스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태국과 깊은 관계에 있어 왔다. 두 나라의 역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깊이 얽혀 있다. 그 역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태국은 라오스를 종종 자신에 의존적인 내지는 심지어 종속적인 나라로 간주해 왔다. 사실 태국은 약 7,000만 인구에 대륙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강하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그에 비해 인구가 650만 명도 되지 않는 라오스는 여전히 공산당이 지배하고 경제적으로는 아시아의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간주될 정도로 약하다. 타이인은 대개 라오인을 알잡아보며, 라오인은 태국에 대해 모종의 문화적, 심리적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관계는 상호 역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도 반영되어 있다.



위앙짠의 메콩강 강독에 최근 아누웁(Anouvong) 왕의 동상이 세워졌다. 아누웁은 라오스가 태국의 통치하에 놓여 있었을 때 위앙짠 왕국의 왕으로서 1820년대 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태국으로부터의 라오스의 독립을 추구했다. 그의 군사적 원정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아누웁 자신은 체포되어 방콕에서 죽었으며, 태국 군대의 공격으로 파괴된 위앙짠 왕국은 태국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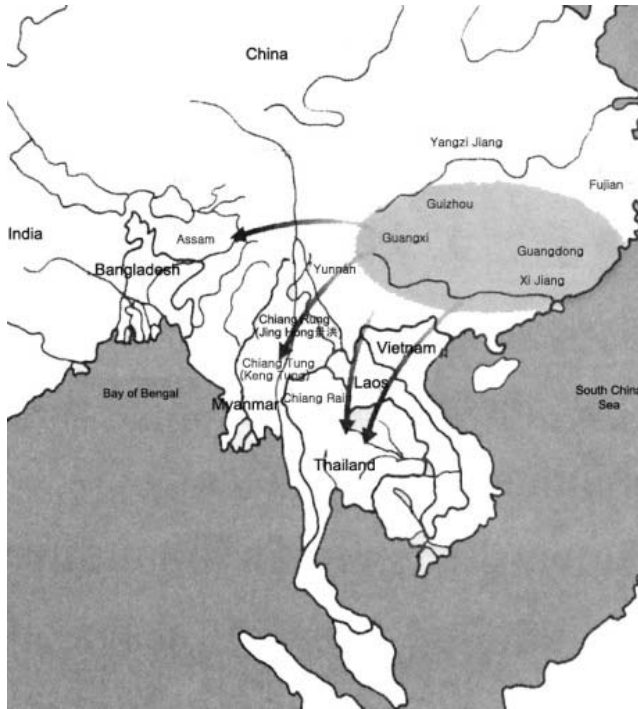
아누웁 왕의 동상은 뺨은 오른 손과 얼굴이 강 건너 태국을 향하고 서 있다. 라오스 당국이 이 동상의 건립을 통해 태국에 대한 아누웁 왕의 저항과 독립 전쟁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오스 당국은 아누웁 왕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역사에서 큰

공로를 세운 몇몇 왕들을 영웅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라오스와 태국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왕들이다. 최근 수도 위앙짠의 450주년 건립 기념사업 위원회에서 출판한 한 책자는 아누웁 왕을 포함한 몇몇 왕들을 “란상 왕국 시대 라오스 역사를 건설한 위대한 조상”(maha bouhout lao phou sang pavat lao nai samai anachak lao lanxang)이라고 칭하면서 “역사를 건설한다”(sang pavat)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라오스에서의 이러한 상황 전개를 중시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초까지 라오스와 태국의 상호 관계사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두 나라 역사교과서 및 학자들의 해석과 서술을 비교한다. 쟁점의 초점은 라오스가 태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양국 관계사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누웁 시대 라오스와 태국의 충돌에 대한 해석이다. 둘째, 라오스의 주체적 역사인식 확립의 방식과 그 목적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2. 라오스-태국 관계사의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 역사기술 비교

1) 타이족의 기원 문제



타이족의 기원과 확산 (태국 중등1년 역사교과서)

중국의 윈난(雲南), 라오스 북부, 태국 북부 등지에 여러 ‘므앙’을 세워 다스렸다. 그것은 대략 7세기 중엽에서 9세기 중엽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의 타이족은 치앙라이(Chiang Rai)주 치앙싼(Chiang Saen) 일대를 흐르는 꼭(Kok)강의 유역 저지대에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은 타이족과 라오족이 동일한 조상에서 유래한 민족들임을 강조한다. 중등과정 역사교과서는 타이족이 원래 중국의 남부 및 동남부 지역에 살던 민족이었다고 말하면서 민족의 기원에 대해 라오스의 사료인 『풍사와단 란창』(Phongsawadan lanchang) 즉 『란상 왕조사』의 기록을 중시한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 루앙파방 북부의 메콩강 저지대에 상호 독립적인 타이(Tai)족 그룹들이 정착해 있었다. 그 중 한 그룹의 통치자가 쿤 보롬(Khun Borom)이었다. 그는 7명의 아들들이 성년에 이르자 이들을 보내 하천유역을 따라 새로운 ‘므앙’(muang) 즉 성읍국을

가를 건립하도록 했다. 이들이

처음에 정착했다가 점차 남부로 이동했다. 특히 중등과정 4-6년 역사교과서는 쿤 보롬이 타이족과 라오족의 공통된 조상이었다고 말한다. 태국의 대외관계사 교과서를 쓴 나롱 푸앙핏이 “란창 혹은 라오는 태국과 형제국가로 간주된다”라고 쓴 것도 타이족과 라오족이 공통된 혈연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역사교과서의 서술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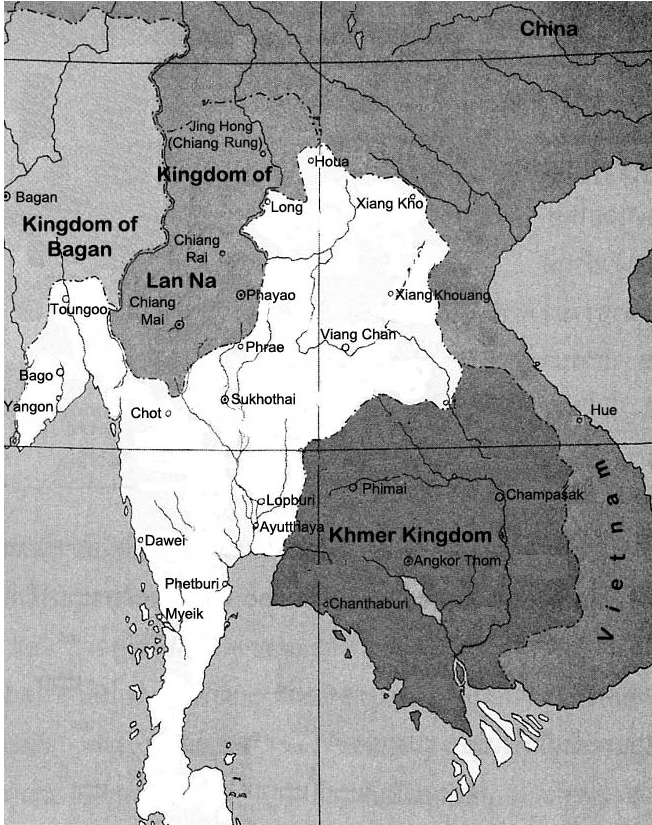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이 타이족과 라오족의 동일한 기원을 언급하는 정도로 양국의 선사시대 민족 형성을 설명하는 것에 비해, 라오스의 역사교과서나 역사책들은 그 동일한 기원이 라오족임을 강조한다. 대중적인 라오스 역사를 집필한 푸통 생아콤은 쿤 불롬(Khoun Bulom) 즉 상기 태국 역사교과서가 말하는 ‘쿤 보롬’이 731년에 오늘날 윈난성 남부의 시쌍반나(Xishuangbanna) 일대로 남하했으며, 그 곳에서 그의 아들들을 루앙파방, 따호(Taho), 탕혹(Thanghok), 시앙광, 치앙마이, 아유타야 등지로 보내 성읍국가들을 세우게 함으로써 라오족(khon lao)을 인도차이나 반도에 퍼뜨렸다고 쓴다. 라오스의 중등과정 4년 역사교과서는 오늘날 라오스의 루앙파방, 위앙짠, 시앙광, 째삐삭 등 뿐만 아니라 태국 동북부에 위치한 로이엣(Roi-et), 나콘랏차시마(Nakhon Ratchasima) 등도 고대 라오족의 ‘므앙’이었다고 말한다.

2) 13-14세기 영토 지배에 대한 주장

태국의 중등과정 1년 역사교과서는 13세기 말경 대륙 동남아시아의 주요 왕국들을 보여주는 지도에서 오늘날 라오스의 북부의 뇿우(Nyot Ou)에서 남부의 사완나켓(Savannakhet)까지 그리고 동부의 시앙광에서 서부의 위앙짠까지의 지역이 수코타이 왕국에 속했다고 그리고 있으며, 특히 위앙짠과 차와(Chawa)가 수코타이의 속국이었다고 쓴다. 수코타이 시대 위앙짠과 차와가 태국의 속국이라는 서술은 13세기 말 수코타이의 람캄행 왕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람캄행 비문의 기록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람캄행이 정복한 나라들 가운데 위앙짠과 위앙캄(Wiang Kham) 그리고 므앙 차와가 포함되어 있다. 위앙캄은 위앙짠의 북부에 있는 소도시이며, ‘차와’는 라오어로 ‘사와’(Xava)로 불리는 곳으로 루앙파방을 가리킨다. 수코타이 시대 태국의 영향력이 라오스의 위앙짠과 루앙파방에까지 미쳤다는 서술은 태국의 역사교과서 뿐 아니라 태국의 대부분 역사학자들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태국의 몇몇 역사교과서들은 람상 왕국의 창건자인 파 응웁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예컨대 플랍플룽 콩차나 등이 공동으로 집필한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파 응웁 왕은 당대에 부유하고 강력한 왕이었고 [중략] 람상의 위대한 통치자”라고 말한다. 또 이 책에 따르면, 파 응웁 왕은 아유타야의 창건자 우통(재위 1351-1369) 왕과 자신이 모두 라오스를 처음으로 세운 쿤 보롬의 후손이라고 여겼으며, 람상과 아유타야가 서로 영토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할 정도로 아유타야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중등과정 2년 역사교과서는 아유타야 시대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를 “친구 같은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항목에서 다루면서, 아유타야와 람상의 관계를 “우호적 결속관계”라고

규정한다. 이 교과서는 양국 간 좋은 관계가 우통 왕과 파 응웬 왕 사이에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좋은 관계”인지, 그 “좋은 관계”가 두 왕국의 창건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진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태국 역사교과서(중등1년)가 주장하는 13세기 말~14세기 초 태국의 영토

2년 역사교과서의 상기 서술은 역사적 상상이나 심지어 조작에 속한다. 아유타야 왕조사의 기록도 역시 역사적 근거가 결여된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적어도 18세기 말 타이인들의 라오스에 대한 제국주의적 역사적 인식의 한 측면 즉 타이인들은 라오스가 수코타이 시대에 이어 아유타야 시대 초기부터 태국의 속국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싶다.

14세기 중엽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에 대해 라오스 측 역사기술은 태국 측의 것과 상반된 설명을 제시한다. 중등과정 1년 역사교과서에 의하면, 파 응웬은 1353년에 란상 왕국을 세운 후 치앙라이, 치앙싼 등을 공격하여 란나 왕국을 굴복시켰으며 남진하여 로이엣과 파삿(Phasat)을 정복했다. 그는 또 아유타야의 우통 왕에게 서신을 보내 “싸울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위협했다. 결국 두 왕국 간 경계를 동 파냐파이(Dong Phanyaphai) 산맥으로 삼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나콘랏차시마를 포함한

두 왕국의 창건자 사이의 “좋은 관계”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근거 없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말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짬타누맛 본 아유타야 왕조사나 태국 역사학계에서 태국 역사의 참고 자료로 중시되는 『왕실 자필본 왕조사』에 의하면, 우통 왕 시대 아유타야 왕국의 속국에 ‘므앙 차와’ 즉 루앙파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료들의 그러한 기록은 13세기 말 수코타이 시대 루앙파방과 위앙짠이 태국의 속국이었다는 람감행 비문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14세기 중엽 아유타야 왕국과 란상 왕국이 막 출범한무렵 두 나라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다.

플랍플릉 콩차나 등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나 중등과정

태국의 이산(Isan) 즉 동북부 지역이 란상 영토에 속했다. 이러한 서술은 라오스의 역사학자 마하 실라 워라윙의 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The Kingdom of Lan Xang in the 14th Century

라오스 역사교과서(중등1년)가 주장하는 14세기 중엽 란상왕국의 영토

여 란상은 14세기 후반부에 오늘날 라오스와 태국의 북부와 동북부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큰 영토의 왕국이 되었다.

상기의 라오스 역사학자는 심지어 파 응웬 왕이 아유타야 왕국을 공격하여 아유타야에 속한 도시들을 정복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로이엣을 정복한 파 응웬이 아유타야의 왕에게 싸움을 청하자, 아유타야 국왕은 사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복문서를 전했다.

우리는 쿤팡(Khun Pang) 시절 이후 형제입니다. 만약 귀하가 마을과 도시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당신에게 동삼사오(Dong Sam Sao, 현 Dong Phraya Phai)부터 푸 프라야포(Phu Phraya Pho)와 나콘 타이(Nakhon Thai)의 경계까지의 지역을 할양하겠습니다. 또 저는 귀하에게 매년 당밀과 설탕을 바치겠습니다. 그밖에 제 딸 낭개오 옷파가 과년이 되면 그 애를 귀하에게 보내 귀하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마하 실라 워라윙은 파 응웬이 란상 왕국을 건설할 때 그의 장인인 앙코르 왕국의 왕이 지원해 준 크메르 군대의 도움을 받았으며, 크메르족이 라오족을 지지한 것은 이를 통해 타이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설명은 라오족의 왕조사가 란상 건국부터 반(反)타이적 정서와 함께 출발했다는 상상을 가능케 한다. 마하 실라 워라윙은 파 응웬이 창건한 란상 왕국의 영토 범위를 라오스뿐만 아니라, 태국 북부와 태국 동북부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란상 왕국은 중부의 캄무안(Khammouan), 나콘파놈, 캄꿏(Khamkeut), 시양광, 동북부의 흑따이 지역, 남쪽으로는 타켝(Thakhek), 사완나켓(Savannakhet)까지 세력을 뻗었다. 파 응웬은 또한 1354년 란나를 정복하여 란나를 란상의 속국으로 만들었으며 당시 크메르족의 통제 하에 있었던 코랏(Khorat) 고원의 대부분을 란상의 지배 하에 넣었다. 파 응웬은 코랏 정복 후 곧 라오족 주민들을 코랏 고원의 북부 일대에 이주시켰다. 그리하여

아유타야의 우통 왕은 또한 코끼리 수컷 51마리와 암컷 50마리, 각각 1만 개의 금과 은, 10만 개의 쌀 그리고 그밖에 다른 조공을 란상 왕에게 바쳤다. 이에 파 응웁은 군대를 이끌고 란상 왕국으로 돌아갔다.

라오스 역사교과서들과 역사학자들은 이처럼 14세기 중엽의 파 응웁 왕이 메콩강 일대와 태국의 동북부 일대의 많은 ‘므앙’을 통일하여 란상 왕국을 창건했다고 쓴다. 그의 역사적 존재는 입증된 것으로 간주되나 그의 역사적 ‘업적’ 특히 태국 동북부의 일부분까지 포함하는 큰 영토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이야기는 전설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파 응웁 왕은 라오스에서 20세기 중엽부터 라오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3) 18세기 말-19세기 초 태국의 라오스 지배와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저항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 태국이 라오스를 점령하고 지배했다고 쓰면서, 라오스에 대한 태국의 지배의 배경과 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란상 왕국이 당시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심지어 최근 출판된 중등과정 3년 역사교과서는 루앙파방, 위앙짠, 짬빠삭 등이 항상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권력 투쟁을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왕국들이라고 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등과정 2년 역사교과서는 툰부리 시대 태국의 위앙짠 점령의 동기로 위앙짠에서의 친태국파와 반태국파 간 분쟁을 든다. 이 역사교과서에 의하면, 위앙짠 내에서의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자 딱신 왕은 짜오프라야 짜끄리 장군을 사령관으로 삼아 군대를 파견했으며, 태국 군대가 여러 므앙(mueang)들에 대해 승리하고 마침내 1778년 위앙짠을 성공적으로 점령했다. 짜오프라야 짜끄리 장군은 위앙짠의 주민들을 붙잡아 태국 영토에 이주시켰으며 또한 위앙짠에 있던 에메랄드 불상(Phra Kaeo Morakot)과 프라 방(Phra Bang) 불상을 가져와 툰부리에 두었다. 루앙파방이 태국의 속국이 된 것은 이 왕국이 자진해서 툰부리에 투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은 이처럼 라오스의 분열 때문에 라오스로의 세력 팽창과 지배가 용이했다고 쓴다. 그러나 이들은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공격과 지배에 있어서 태국의 팽창적인 자세에 주목하지 않는 듯하다. 이 점에서 플랍플룽 콩차나 등이 집필한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약간 예외적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툰부리 시대 태국과 란상의 관계를 속국의 관계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관계가 툰부리가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란창으로 세력을 확대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쓴다. 하지만 여기서도 란상이 당시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 빠트리지 않고 언급되어 있다.

태국의 몇몇 역사교과서들은 툰부리 시대 태국의 라오스 공격과 점령의 직접적 발단으로 부리람(Buriram)의 동남부에 있는 낭롱(Nang Rong) 성의 태국에 대한 배반 사건을 중시한다. 예컨대 플랍플룽 콩차나 등의 『태국의 국제관계사』에 의하면, 툰부리 정부는 란상의 정복에 있어서 먼저 짬빠삭을 점령했다. 그것은 당시 나콘랏차시마에 속해 있던 낭롱이 나콘랏차시마와의 불화로 1776년 짬빠삭에 도움을 요청하자 짬빠삭

이 낭룡의 요청을 수락했는데, 이로써 짬빠삭이 라오스 남부에서 세력이 증대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중등과정 2년 역사교과서는 보다 간략히 1776년 낭룡 성이 반란을 일으켜 짬빠삭에 투항하자 톤부리의 태국 군대가 낭룡 성을 친 후 짬빠삭을 공격하여 점령했다고 서술한다. 나롱 푸앙핏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도 톤부리의 짬빠삭 공격의 직접적 배경으로 나콘랏차시마와 분규를 일으키고 짬빠삭에 붙으려 한 낭룡의 사태를 중시한다. 태국 역사교과서들이 중시하는 낭룡 성 에피소드는 태국의 『왕실 자필본 왕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역사책의 서술에 의하면, 낭룡의 성주가 짬빠삭의 통치 세력과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딱신 왕이 군대를 보내 그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그가 반란을 꾀했다는 것이 진실로 드러나자 그는 처형되었다. 톤부리의 군대는 낭룡 성 반란을 진압한 후 짬빠삭, 콩(Khong), 앓따쁘(Attapue) 등 라오스 남부의 성들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특히 짬빠삭의 성주와 우빠햇(upahat) 즉 부성주(副城主)를 붙잡아 모두 처형했다.

패트릭 조리는 태국 국민이 자국의 역사를 접하는 형태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기타 공적인 채널을 통해 대중화되는 왕정주의-민족주의(royalist-nationalist) 역사와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수단을 통해 상업적 대중매체가 퍼뜨리는 역사 등 두 가지로 파악한다. 이 중 왕정주의-민족주의 역사는 담롱 역사학파(Damrong school of history)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태국의 대표적인 왕정주의-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한 사람인 롱 사야마논이 톤부리 시기 태국의 짬빠삭 점령에 대한 기술에서 담롱 왕자가 주해한 상기 왕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나, 태국 역사교과서들이 낭룡 성 에피소드를 언급하는 것은 담롱 역사학파가 지배하는 태국의 왕정주의-민족주의 역사학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778년 딱신의 위앙짠 공격에 대해 중등과정 2년 역사교과서는 위앙짠의 지도자들 간의 불화로 인해 그들 중 한 명이 톤부리 측에 충성하려고 하자 상호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으며, 이에 딱신 왕이 군대를 보내 위앙짠을 점령했다고 간략히 서술한다. 플랍플룽 콩차나 등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보다 상세하다. 이에 따르면, 딱신과 위앙짠의 실리분냐산은 미얀마의 위협에 대해 협동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다가 1773년에서 1776년 사이 위앙짠의 왕은 미얀마의 공격이 두려워 미얀마와 연합했다. 그 때 위앙짠의 왕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 우빠햇인 프라 워는 아유타야 왕국의 영토로 도피했다. 미얀마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던 실리분냐산이 군대를 보내 프라 워를 태국에서 살해하자, 톤부리 군대가 위앙짠을 공격했던 것이다. 『태국의 국제관계사』의 이 서술 역시 『왕실 자필본 왕조사』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1778년에 시삿따낙카나훗(Sisattanakhanahut) 성에서 과거에 이 성의 우빠햇이었던 프라 워가 란상의 국왕에 불만을 품고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가 농부아람푸(Nong Bua Lamphu)에 정착했다. 오늘날 태국 땅에 있는 농부아람푸는 우돈타니(Udon Thani)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다. 란상의 왕이 미얀마 군대와 함께 농부아람푸를 공격하자, 프라 워는 짬빠삭 북부에 있는 돈못댕(Don Mot Daeng)으로 도피했으며 곧 나콘랏차시마에 사신을

보내 툰부리 왕국에 투항했다. 그 후 란상의 왕이 군대를 보내 돈못댕을 공격하여 프라 워를 붙잡아 처형하자,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딱신은 크게 분노하여 란상을 정벌 하도록 했다.

나롱 푸앙핏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1778년 딱신이 위앙짠을 공격한 것은 위앙 짠의 실리분냐산 왕이 우본(Ubon)을 공격하여 태국에 충성하는 우본 성주를 붙잡아 살 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서술은 롱 사야마논이 “위앙짠에서 ‘프라 워’라는 대 신이 왕에게 반역하여 짬빠삭 지역으로 도망가 거기서 오늘날 우본 부근의 돈못댕에 정착했다”라고 쓴 것을 그 맥락에 대한 조사 없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롱 사야마논 의 서술은 『왕실 자필본 왕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라오스와 태국의 관계는 1820년대 후반 아누왕의 저항과 그에 대한 태국의 ‘정벌’ 과 아누왕의 죽음 그리고 위앙짠의 파괴로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 시기의 양국 관계사 를 다루는 태국과 라오스의 당국과 역사학자들과 언론은 그 주제의 민감성 내지는 ‘폭 발성’ 때문에 때로는 그 시기의 역사를 모호하게 얼버무리거나 때로는 그 시기의 일련 의 사건들을 설명할 때 각각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 나 어느 경우에도 그들의 내러티브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족주의적 감정이 실 려 있다.

플랍플룽 콩차나 등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태국의 역사교과서들 중 유일하게 라마1세 치세(1782-1809)부터 라마2세 치세까지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를 비교적 상세 하게 서술하는데, 그것은 라마3세 시대(1824-1851)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응징’이 왜 정당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이해된다. 서술은 우선 이 시기 위앙짠, 루앙파방, 짬빠삭 등 란상의 세 왕국들이 태국에 대해 속국의 위치에 있었으며, 그들이 상호 분 쟁 관계에 있었다고 말한다. 예컨대 위앙짠의 난타센 왕은 1789년 방콕 정부에게 루앙 파방이 미얀마 쪽에 붙어 태국을 배반한다고 고발했다. 1794년에는 루앙파방의 왕이 방콕 조정에게 위앙짠이 친베트남 노선을 가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라마1세가 두 왕을 방콕으로 불러 심문했으며, 그 과정에서 난타센이 방콕에서 사망했다. 상기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란창이 [태국의] 힘을 두려워하여 태국 의 속국이 되길 원했지만, 이처럼 기회가 생기면 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 안마 혹은 베트남 같은 다른 국가의 힘을 구했다”라고 쓴다.

플랍플룽 콩차나 등의 『태국의 국제관계사』에 의하면, 라마1세는 난타센의 사망 후 그의 동생인 인타왕을 위앙짠의 통치자로 임명했다. 위앙짠 왕실의 다른 왕자들은 방콕에 계속 머물렀다. 인타왕이 1804년 사망하자 방콕 정부는 그의 동생인 아누왕을 후계자로 임명했다. 그것은 아누왕이 우빠합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태국과 미 안마의 전쟁에서 공적을 세우는 등 태국의 국사에 협조했기 때문이었다. 1819년 짬빠 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누왕은 자신의 아들인 뇨 왕자와 함께 그것을 성공적으로 진압했으며, 이를 기회로 삼아 방콕 궁정의 왕자들 중 실세였던 췌사다보딘 왕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짬빠삭의 통치자로 임명되도록 라마2세에게 건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안건에 대해 당시 태국 왕실의 시니어 왕족들은 위앙짠의 세력 증대를 우려하여

반대했지만, 쯏사다보딘이 아누왕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에 결국 라마2세는 뇨 왕자를 짬빠삭의 통치자로 임명했다. 쯏사다보딘 왕자가 뒤에 라마3세로 등위하자 아누왕은 곧 방콕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태국의 역사학계에는 아누왕이 태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원래는 방콕 정부를 붕괴시키거나 방콕을 점령하고 이를 통해 태국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서술하는 자가 종종 있다. 예컨대 태국의 대중적인 역사학자인 마닛 춤사이는 아누왕이 처음에는 “태국 전체를 정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쓴다. 아낏 아난팍은 아누왕이 “방콕을 공격할 수 있으면 공격하고 만약 방어가 강력하면 공격하지 않으려 했으나” 전쟁은 결국 란상의 군대가 행군하는 도중의 성읍들에서 주민들을 붙잡아가는 것으로 전개되었다고 말한다. 태국의 통속적인 역사학자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람쑤 후압짜런은 심지어 아누왕이 태국에 대해 일으킨 반란이 성공했으면, 짜끄리 왕조가 무너지고 아누왕의 왕조가 세워져 태국을 지배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은 태국 역사학계에서 라마3세 시대 태국 역사의 기본 사료로 간주되는 티파꼬라왕의 『라마3세 치세 라따나꼬신 왕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역사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위앙짠의 아누(Anu)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후 왕족들 및 귀족관료들과 협의하기를 “현재 방콕에는 나이 어린 왕자들밖에 없으며 귀족 대신들도 몇 사람 되지 않고 그들의 전투 기량도 약하다. 또 나콘랏차시마의 성주도 없으며 [방콕까지 행군하는 도중 우리를] 저지할 성읍들도 없다. [우리의] 사정은 이미 심각하다. 우리가 속국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부당하다. 영국이 [태국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있다.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 방콕을 공격하여 정복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빠랏은 태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방콕을 공격할 수 있을지라도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므로 방콕을 계속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아누는 만약 우리가 [방콕을] 공격한 후 거기에 계속 정착할 수 없다면, 주민들을 붙잡아 우리 나라로 이주시키고 [태국] 국고의 재산을 약탈하여 갖고 올 것이라고 대답했다. [중략] 우빠랏은 아누가 홀로 완고하게 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반대하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동의하는 척 할 수밖에 없었다.

플랍플룽 콩차나 등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독자들에게 태국과 란상의 관계에 있어서 란상이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태국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역사교과서는 또 라마3세가 왕자 시절부터 위앙짠의 아누왕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를 통해 아누왕의 무력 도발이 그의 호의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따라서 “라마3세가 그를 철저하게 진압하여 마침내 아누왕이 1828년 붙잡혀 방콕에서 사망한 것”은 마땅했다고 말하려는 듯하다. 필자들은 아누왕이 전쟁을 일으킨 것을 타이 ‘왕국의 힘에 대한 직

접적인 도전'으로 표현하며 그 목적을 '독립 추구'(phayayam tang tua pen itsara)로 규정한다.

2001년에 출판된 중등과정 3년의 『우리의 나라』라는 역사교과서 역시 1820년대 위앙짠의 태국에 대한 저항을 비교적 상세히 다룬다. 그 서술에 따르면, 아누왕은 태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베트남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태국에 대한 군사적 원정을 감행한 이유는 태국이 당시 캄보디아에 진입해 있던 베트남에게 세력 면에서 밀리고 있었고 영국과도 분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 책도 상기의 『태국의 국제관계사』와 비슷하게 아누왕의 군사적 행동을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하며 그 목적이 '분리 독립'(kan yaek tua pen itsara)이었다고 설명한다.

나롱 푸앙핏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라마2세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태국이 위앙짠의 아누왕을 태국에 대해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로 간주했으며 방콕 정부가 아누왕의 왕자를 째빠삭의 통치자로 임명하는 등 태국과 란상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쓴다. 이 책은 또한 태국이 란상 왕국들을 지배하고 라오인들로 하여금 태국 국왕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지만, 행정적으로는 라오인들이 스스로 통치하도록 허락했는데, 바로 이 체제가 베트남으로 하여금 기회를 포착하여 라오스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게끔 만들었고 라마3세 시기에 아누왕이 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1826년 군대를 일으켰다고 말한다. 나롱 푸앙핏은 아누왕의 태국으로의 진격과 그 후의 전쟁의 전개를 다른 역사교과서들과는 달리 약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 서술에 의하면, 아누왕의 군대는 나콘랏차시마까지 가서 재산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붙잡아 위앙짠으로 끌고 갔다. 란상의 군대가 나콘랏차시마를 공격할 때, 이 성의 모(Mo)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주민들을 규합하여 라오스 군대에 저항했다. 모는 뒤에 그 영웅적인 행위로 인해 태국 왕으로부터 '타오 수라나리'라는 귀족 칭호를 하사받았다. 뒤에 방콕에서 파견된 군대가 나콘랏차시마를 란상 군대의 손에서 구출하고 위앙짠으로 진격하여 이것을 점령했다. 아누왕은 베트남으로 도망했다가 1827년 다시 돌아와 위앙짠에 주둔하고 있던 태국 군대를 공격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나롱 푸앙핏은 플랍플룽 콩차나 등의 필자들과 마찬가지로 1820년대 태국과 라오스의 충돌의 배경에 있어서 태국 측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은 아누왕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나롱 푸앙핏의 『태국의 국제관계사』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측면은 1820년대 후반 아누왕의 저항이 '반란을 일으킨 것'(kan ko kabot)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등과정 3년 역사교과서에서도 아누왕이 태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가 '까봇'(kabot) 즉 '반란'으로 표현되어 있다. '반란'이란 용어는 이 시대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를 다룬 태국 역사학자들의 저술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표현은 티파꼬라왕의 『라마3세 치세 라따나꼬신 왕조사』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이 사료는 아누왕을 1826년 거사 전부터 방콕 정부에게 해를 끼치려 한 '반역적'(pen kabot) 인물로 묘사한다. 담롱도 자신이 편찬한 1826~1828년 란상에 대한 태국 원정군의 총사령관 짜오프라야 보딘데차의 일대기에서 아누왕이 "반역을 꾀했다"(khit kan kabot)라고 쓴다. 태국 역

사교과서의 집필자들은 1820년대 태국과 라오스 관계사를 서술할 때 티파끄라왕의 역사책이나 담롱의 글을 참고하지 않았나 싶다.

‘반란’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질서 내에서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의 통치 권력을 전복하여 그 지배적 위치를 대신 차지하기 위해 일으키는 동란으로 이해된다. 그에 비해 위에서 소개한 중등과정 3년의 『우리의 나라』에서 표현한 ‘분리 독립’ 혹은 ‘분리주의’는 대개 한 국가 내에서 다수민족의 핵심 그룹이 주변부의 소수민족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품은 종족이 더욱 많은 자치권이나 심지어 정치적 자결권과 독립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19세기 초 라오스의 한 엘리트 그룹이 태국에 대해 군사적 도전을 한 것에 ‘반란’이나 ‘분리주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술한 ‘반란’과 ‘분리주의’ 개념의 제한적 성격에 의하면, 당시 라오스가 태국에 민족적·문화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행정적으로는 완전히 흡수된 태국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라오스가 태국의 속국 내지는 식민지가 된 것은 1770년대 말이었으며, 그 후에도 태국은 라오스의 왕실들이 란상 왕국들을 직접 통치하도록 허용했다. 1820년대 라오스는 태국의 반독립적인 속국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의 사교과서들이 1820년대 아누왕의 저항을 ‘반란’ 혹은 ‘분리 독립’ 등의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당시 라오스가 태국의 정치적 질서에 속했고 영토적으로 태국의 일부였다고 인식하는 태국중심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서의 설명은 라오인의 시각에서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아누왕의 저항에 대한 라오스 역사학계의 설명은 태국 측의 것과 대조적이다. 마유리와 퍼이판은 1820년대 라오스와 태국 간 무력 충돌의 발단을 태국 측이 제공했다고 본다. 그들은 라오스 사료인 ‘위앙짠 간략 왕조사’(Chotmaihet Yo Muong Vientiane)를 인용하면서, 1824년 라마3세가 등위 직후 라오인들을 문신하여 태국 백성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타이인 관리들을 깔라신(Kalasin), 쿠칸(Khukhan), 야소톤(Yasothon) 등 코랏 고원의 여러 도시들로 파견했다고 쓴다. 이 라오스 역사학자들은 이전에는 그러한 규모로 시행된 적이 없었던 태국 정부의 1824년 조치가 라오스를 정치적, 영토적으로 “삼키려는”(swallowing) 의도에서 나왔으며, 그 문신 정책(tattooing policy)은 라오스의 완전한 ‘시암화’(siamicisation) 그리고 ‘지방화’(provincialisation)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규정한다. 그들은 당시 란상 왕국에 대한 방콕 정부의 침략적 의도의 증거로 1827년 1월 영국인 무기상인 말록(E. Malloch)이 한 타이 관리로부터 입수한 문건에 위앙짠, 루앙파방, 째빠삭의 주민들이 모두 ‘시암인’(Siamese)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마유리와 퍼이판의 주장에 의하면, 아누왕의 원정 목적지는 방콕이 아니라 코랏 즉 나콘랏차시마였으며, 그 과정에서 라오스 군대가 사라부리까지 진격한 이유는 1770년대 말 그 곳으로 강제 이주된 라오인들을 라오스로 도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에 대한 증거로 1827년 2월 랏사왕 즉 아누왕의 아들인 응아오가 사라부리에 도착한 당일 코랏으로 부대를 이동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위앙짠에서 가장 먼저 출정한 란상의 부대가 짜오프라야 강 지역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신 등록을 위해 방콕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활동하고 있던 깔라신으로 행군했다는 사실을 든다. 마유리와 퍼이판

은 아누웁이 란상 왕국의 태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했지만 자신의 군사적 동원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라마3세의 태국 궁정과 그동안 구축해 놓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콕을 공격의 목표로 삼아 태국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전쟁을 도발할 인물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들은 1830년대 초 태국을 여행한 독일인 개신교 선교사 칼 프리드리히 귀츠라프가 아누웁이 “[태국] 왕과 전쟁을 벌일 의도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가 그러한 전쟁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쓴 기록을 중시한다.

라오스의 중등과정 1년 역사교과서는 아누웁이 전쟁을 일으킨 배경으로 아누웁이 방콕에서 라마3세에게 1770년대 말에 태국 군대가 갖고 간 에메랄드 불상과 사라부리로 노예로 잡혀간 라오인들 그리고 란상 왕국의 무용수들과 왕족을 위양짚으로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거절된 것 그리고 1824년 태국 정부가 실시한 라오인들에 대한 문신 및 주민등록 정책을 든다. 이러한 서술은 추측건대 마유리와 퍼이판의 연구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사교과서는 아누웁의 저항을 ‘독립전쟁’(songkham ku ekalat)으로 규정하면서, 그 독립전쟁이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적어도 라오인들이 혈통적인 본질에 있어서 용감하게 저항하고 절대적으로 항복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쓴다.

태국의 여러 역사교과서들이 아누웁의 도전을 ‘반란’, ‘분리독립’의 시도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시의 라오스를 태국의 영토적, 정치적 일부로 간주하는 것과는 달리, 라오스의 역사교과서들과 라오인 역사학자들은 아누웁이 강한 주권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예컨대 마유리와 퍼이판은 그에 대한 증거로 1826년에 영국인 제임스 로우 (James Low)가 당시 시암이 조직적으로 팽창정책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란상이 언제든지 독립을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한 것과 아누웁이 태국으로의 출정에 앞서 그의 협력자들에게 “사정은 이미 심각하다. 우리가 속국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한 것을 중시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1826년 아누웁의 태국에 대한 도전이 라오인들의 정체성과 국가적 주권을 지키고 1778년 상실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군사적 행동은 타이 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위양짚의 반란’이 아니라 ‘라오인들의 궤기’(insurrection of the Lao)였다고 주장한다.

3.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

라오스에서 라오 민족주의적인 역사인식과 특히 태국에 대한 주체적 역사기술은 프랑스 식민주의 시대인 1930년대 전반기에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34년 식민 당국의 후원 하에 라오스 역사를 다루는 두 종류의 교과서가 간행되었다. ‘풍사와단 라오’(Phongsavadan Lao) 즉 『라오 역사』와 ‘뱌 손안’(Bep Son An) 즉 『라오 독본』이 그것으로, 그 집필진에는 프랑스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풍사와단 라오’는 라오스를 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한 아누웁을 라오스의 역사적 영웅으로

묘사하고, 역시 아누웁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뱀 손 안’은 심지어 아누웁 시대 라오스가 태국의 속국이란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라오스와 태국의 관계에 있어서 태국은 전반적으로 침략자로 그려진다. 1940년대가 되면 태국에 대한 라오스의 역사적 주체의식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1940년 말 위앙짠에서 열린 한 군중의 집회 장소에 “오늘날 치앙마이, 우본, 코랏은 시암의 지배 하에 있다. 이들은 과거에 라오 영토였다”라는 문장이 포함된 전단들이 나뉘었다. 1941년 1월에 창간된 라오스의 최초의 신문 ‘라오 냐이’(Lao Nhay)에는 3월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라오인은 시암인과 다르다. 란상은 시암의 일부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란상은] 자체의 개성을 갖고 있었다. 우리 역사의 가장 먼 시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옛 국가가 다른 나라의 속국인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다. 라오인들은 이웃들과 완전히 구별된다.

‘위대한 라오’란 뜻을 지닌 이 신문의 집필자들은 여기서 라오스에게 태국의 역사적 영향력에서 벗어난 새로운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하며 역사적 존재인 란상과 라오 민족 간 시공을 초월한 동질감을 상징한다.

1954년 독립 후 라오스 정부는 국민들 사이에 국가적 자의식 내지는 주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을 1957년에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해에 라오스 왕실정부는 사이냐 셋타틸랏 왕의 동상을 설립했다. 라오스에서 역대 국왕의 동상으로는 최초의 것인 이 왕의 동상 건립은 불교 창건 2,500주년의 기념이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위앙짠을 수도로 정한 이 왕이 라오스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라오스 역사에서 ‘위대한’ 국왕에 대한 국가적 존경의 전통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라오스 정부는 같은 해에 수도의 타논 란상(Lan Xang Avenue Boulevard)의 끝자락에 위치한 한 작은 언덕에 ‘아누사왈리’(Anousavali) 즉 기념탑을 세우는 사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공공기념물의 건축은, 에릭 홉스봄이 지적하듯이, 민족(nation) 형성을 위한 전통의 발명과 관련하여 국가가 벌이는 중요한 사업에 속한다. 그에 따르면 공공기념물은 ‘민족’과 주민들 간에 가시적인 연계를 만들어낸다.

1950년대 왕실정부가 라오스의 ‘위대한 국왕’을 중심으로 라오스 ‘전통의 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은 독립 후 처음으로 라오인의 손으로 건설해야 하는 라오스 국민국가의 형성에서 왕실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위상을 확고하게 세우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970년 당시 라오스 총리인 수완나 품마가 “라오스의 중요한 국왕들”이란 제목이 붙은 팸플릿을 간행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라오스 정부는 다음의 인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문서를 통해 라오스 국민에게 왕실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라오스 국민에게 라오 민족에 대한 애국심과 역사적 주체의식을 함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조국이 외세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는 이 때,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용맹함과 희생의 용기 그리고 란상의 영웅적인 왕들에 대해 기억해야 합니다. 이 통치자들의 희생적인 용기 덕택에 라오 토양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 왕국의 전체 영토를 보호하고 수호하여 그것이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민족이 민족으로 남고 라오스가 라오스로 존재하려면 오직 모든 라오인들이 [민족적 의무] 짐을 불굴의 정신으로 나눠지고 우리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그들의 영예로운 행위를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라오스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라오 정체성을 고취시키려는 라오스 정부의 노력은 1975년 공산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은 특히 라오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태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라오스 공산당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 받는 까이손 품위 한이 1980년에 아누웁 왕의 태국에 대한 저항을 라오스의 국가적 주권 수호를 위한 투쟁의 전통에 자리매김하면서 쓴 다음의 글에서 드러난다.

18세기 이후 우리의 분열된 나라는 봉건적인 시암인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지배되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더욱 단결하여 용기를 내어 투쟁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가장 뛰어난 투쟁은 우리의 민족적 영웅인 짜오 아누웁의 영도 하에 나라 전체가 일으킨 봉기였다. 이 봉기는 비록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우리의 민족 저항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장을 기록했으며, 그 영웅적이고 불요불굴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인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라오스 역사의 바로세우기, 특히 태국과의 관계에 대해 라오스 역사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라오스 국민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2000년대 들어서서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2000년에 라오스의 문화공보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는 1,310쪽에 달하는 『고대-현대 라오스의 역사』를 발간했다. 타이 민족주의적 역사기술과 베트남의 이념적 영향에 대해 라오스의 자율적 역사기술과 역사해석을 추구하는 이 책은 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라오스의 공직사회에서 라오스 역사의 권위 있는 참고서로 통한다.

같은 해에 푸통 생아콴이라는 한 역사학자는 『라오 민족과 라오인 -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의 라오스 역사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라오스의 역사를 거의 란상 왕국의 “위대한” 왕들의 역사로 채운다. 저자는 “위대한” 왕들 중 특히 파 응웁, 사이냐 셋타틸랏, 아누웁의 활동을 비중 있게 다루어, 파 응웁은 라오스 최초의 왕국의 창건자로, 사이냐 셋타틸랏과 아누웁은 외세의 침략에 대해 라오스의 민족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 영웅으로 묘사한다. 그의 책은 처음 출판된 후 2006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비록 부수가 각각 1,000부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의 상대적인 적은 인구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출판시장과 독서문화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책은 적어도 라오스의 지식인 층 사이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리라고 짐작되며, 만약 그렇다면 이 책이 라오인들 사이에 자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 특히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에 라오스 정부는 12명의 라오스 역사적인 영웅을 선정하여 그들의 기념동상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12명의 영웅에는 3명의 전통왕국 시대 국왕들과 9명의 공산혁명 지도자들이 포함되었다. 3명의 왕은 파 응웬, 수리냐왕사, 아누웬 등이다. 폴커 그라보브스키(Volker Grabowsky)에 의하면, 공산당 정부가 봉건시대 군주들을 라오스 인민이 존경해야 할 역사적 영웅의 반열에 올린 이유는 그 왕들을 라오스의 독립과 주권의 유지를 위한 혁명투사로 전환하고 라오스 공산당 지도자들을 그들의 혁명 후계자 대열에 배치시킴으로써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 라오스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의 계승자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동시에 라오스 국민에게 라오스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이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건립된 파 응웬의 동상 제막식이 란상 왕국의 건립 650주년 기념과 맞물려 2003년 1월 5일 수도 위앙짠에서 거행되었을 때, 라오스 국립박물관 관장인 수넛 포티산이 행한 다음의 연설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가 파 응웬 동상을 세운 것은 라오인들이 다양한 적들에 대해 보여 왔던 용기와 애국심을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평화와 독립, 통일과 번영을 갖다 주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중략]. 파 응웬 동상의 의미는 왕정(王政)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 응웬 왕이라는 영웅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종족을 포함하는 라오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그의 모든 에너지와 지성을 바쳤습니다.

영웅적 국왕을 중심으로 한 라오스 역사의 재정립과 라오스 국민의 역사적 인식 강화를 위한 최근의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010년 위앙짠의 메콩강 강변에 아누웬의 동상을 건립한 것이 아닌가 싶다. 11월 7일 동상의 제막식에는 라오스 대통령 춤말리 사냐손을 위시한 정부의 고위관료들과 공산당 핵심간부들 그리고 승려들과 순한 시민이 참가했다.

동상제작 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부총리인 솜사왓 령사왓은 연설에서 아누웬 왕의 라오스에 대한 애국심과 독립을 위한 헌신을 칭송하면서 라오스 국민이 아누웬을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행사를 보도한 라오스의 대표적인 영자신문 *Vientiane Times*는 “[아누웬이] 1826~1828년 시암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여 투쟁했다. 비록 싸오 아누웬이 2년 간 이끈 전국적인 봉기는 진압되었지만 그 운동은 민족의 수호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국면을 보여주었다”라고 쓴다.■

참고문헌

<라오어 문헌>

- Kasouang Thalengkhae Le Vatthanatham. 2000. *Pavatsan lao duekdamban- pachuban* [고대-현대 라오스의 역사]. Viangchan: Kasouang Thalengkhae Le Vatthanatham.
- Khana Anoukammakan Thopthouan Hip-hom Le Khian Pavatsat Nakhon Louang Viangchan 450 Pi. 2010. *Nakhon louang viangchan 450 pi 1560-2010* [수도 위앙짠 450년 1560-2010년]. Viangchan: Nakhon Louang Viangchan.
- Phouthong Seng-akhom. 2006. *Xat lao khon lao adit le pachouban* [라오 민족과 라오인 - 과거와 현재]. Viangchan: Nakhon Louang Viangchan.
- Saloemsak Phaboutdi, Dexanoulat Sendouangdet, Phengsi Khammoungkhoun. 2010. *Bephian Pavatsat xan matthanyom pi thi nueng* [중등과정 1년 라오 역사교과서]. Viangchan: Kaxouang Sueksathikan Sathaban Khonkhoa Vithanyasat Kansueksa.
- Viangvichit Sutthidet. 2008. *Bephian Pavatsat xan matthanyom pi thi si* [중등과정 4년 라오 역사교과서]. Viangchan: Kaxouang Sueksathikan Sathaban Khonkhoa Vithanyasat Kansueksa.

<타이어 문헌>

- Anat Ananphak. 2011. *Raksa phaendin khayai anakhet songkhram yai samai ton krung rattanakosin (ratchakan thi nueng-sam)* [국가 안보와 영토 확장: 라따나꼬신 왕조 초기(라마1세-라마3세) 큰 전쟁]. Krung Thep: Ypsy Group
- Cham Thongkhamwan. 1966. *Sinla charuek sukhothai lak thi nueng* [수코타이 비문 제1집]. Krung Thep: Mahawithayalai Ramkhamhaeng.
- Damrong Rachanuphap, Somdetphrachao Boromawongthoe Kromphraya. 1961. *Prawat chaophraya bodindecha(sing singhaseni)* [짜오프라야 보딘데차(싱 싱하세니)의 역사]. In: *Prawat chaophraya mahasena(bunnak) prawat chaophraya bodindecha(sing singhaseni) prawat chaophraya yomarat(pan sukhum)*. Krung Thep: Ongkankha Khong Khurusapha.
- Danai Chaiyotha. 2003. *Prawattisat thai: Yuk krung thonburi thueng krung rattanakosin* [태국의 역사: 톤부리 시대부터 라따나꼬신 시대까지]. Krung Thep: Odian Sato.
- Kramon Thongthammachat et al. 2001. *Prathet khong rao si chan matthayom sueksa pi thi sam* [중등과정 3학년 우리의 나라 제4권]. Krung Thep: Akson Charoenthat.
- Lamchun Huapcharoen. 2011. *Prawattisat lae phongsawadan sayam* [시암의 역사와 왕조사]. Krung Thep: D.K. Book.
- Mahasila Wirawong. 1992. *Prawattisat lao* [라오스 역사]. Translated by Sommai Premchit. Krung Thep: Matichon.
- Narong Phuangphit. 2001. *Prawattisat khwam samphan rawang prathet khong thai radap matthayom sueksa ton ton* [중등과정 초급단계 태국의 국제관계사]. Krung Thep: Akson Charoenthat.
- Phan Chanthanumat. 1969.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phan chanthanumat* [판 찐타누맛 본 아유타야 왕조사]. Prachum phongsawadan lem 38. Prachum phongsawadan phak thi 64. Krung Thep: Ongkankha Khong Khurusapha.
- Phlai Noi. 1992. *Saranukrom prawattisat thai* [태국 역사 사전]. 4쇄 및 개정증보판. Krung Thep: Bamrungsan.
- Phlapphueng Khongchana et al. 2000. *Prawattisat khwam samphan rawang prathet khong thai radap matthayom sueksa ton ton* [중등과정 초급단계 태국의 국제관계사]. Krung Thep: Doe Mattoe Krup Maenetmen.
- Phongsawadan luang phrabang* [루앙프라방 왕조사]. Prachum phongsawadan phak thi 11, Volume 10, Krung Thep, 1963.
- Prawattisat prathom 3: *Prawattisat chan prathom sueksa pi thi sam* [초등과정 3년 역사]. 2010. Krung Thep: Samnak-ngan Khana Kammakan Kansueksa Khan Phuenthan, Krasuang Sueksathikan.
- Prawattisat prathom 4: *Prawattisat chan prathom sueksa pi thi si* [초등과정 4년 역사]. 2010. Krung Thep: Samnak-ngan Khana Kammakan Kansueksa Khan Phuenthan, Krasuang Sueksathikan.
- Prawattisat prathom 5: *Prawattisat chan prathom sueksa pi thi ha* [초등과정 5년 역사]. 2010. Krung Thep: Samnak-ngan Khana Kammakan Kansueksa Khan Phuenthan, Krasuang Sueksathikan.

- Prawattisat prathom 6: *Prawattisat chan prathom sueksa pi thi hok* [초등과정 6년 역사]. 2010. Krung Thep: Samnak-ngan Khana Kammakan Kansueksa Khan Phuenthan, Krasuang Sueksathikan.
- Prawattisat matthayom 1: *Prawattisat chan matthayom sueksa pi thi nueng* [중등과정 1년 역사]. 2010. Krung Thep: Samnak-ngan Khana Kammakan Kansueksa Khan Phuenthan, Krasuang Sueksathikan.
- Prawattisat matthayom 2: *Prawattisat chan matthayom sueksa pi thi song* [중등과정 2년 역사]. 2011. Krung Thep: Samnak-ngan Khana Kammakan Kansueksa Khan Phuenthan, Krasuang Sueksathikan.
- Prawattisat matthayom 3: *Prawattisat chan matthayom sueksa pi thi sam* [중등과정 3년 역사]. 2012. Krung Thep: Samnak-ngan Khana Kammakan Kansueksa Khan Phuenthan, Krasuang Sueksathikan.
- Prawattisat matthayom 4-6: *Prawattisat chan matthayom sueksa pi thi si-hok* [중등과정 4-6년 역사]. 2010. Krung Thep: Samnak-ngan Khana Kammakan Kansueksa Khan Phuenthan, Krasuang Sueksathikan.
- Ratchabandit Sathan. 1999. *Lakken kanthot akson thai pen akson roman baep thai siang* [타이어 문자의 로마자 표기규칙]. Krung Thep: Ratchabandit Sathan.
- Suchen Kanphruet. 2012. *Tamroi chao anuwong khlipom prawattisat thai-lao* [짜오 아누웁의 자취를 좇아 - 태국-라오스 역사의 전개]. Krung Thep: Sarakhadi.
- Thiphakorawong, Caophraya. 1961.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rattanakosin ratchakan thi sam* [라마3세 치세 라따나꼬신 왕조사]. 2 Volumes. Krung Thep: Ongkankha Khong Khurusapha.
- Wongsathiratsanit, Kromluang. ed. 1952. *Phraratcha phongsawadan chabap phraratcha hatthalekha* [왕실자필본 왕조사]. 4 Volumes. Krung Thep: Odian Sato.

<한글 및 서양어 문헌>

- 르낭, 에르네스트. 2002. 『민족이란 무엇인가』. 신행선 역. 책세상.
- 조흥국. 2002. 「메콩강의 경제적 잠재력과 유역국가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조흥국 외. 『메콩강과 지역협력』.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Che Man, W. K. 1990. *Muslim Separatism: the Moros of Southern Philippines and the Malays of Southern Thailand*.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Evans, Grant. 1998. *The Politics of Ritual and Remembrance: Laos since 1975*. Chiang Mai: Silkworm Books.
- Grabowsky, Volker. 2011. "Recent Historiographical Discourses in the La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Volker Grabowsky ed. *Southeast Asian Historiography Unravelling the Myths: Essays in honour of Barend Jan Terwiel*. Bangkok: River Books.
- Gützlaff, Karl Friedrich August. 1834.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 1833, with Notices of Siam, Corea, and the Loo-choo Islands, to Which is Prefixed an Introductory Essay on the Policy, Religion, etc., of China by the Rev. W. Ellis*. London: F. Westley.
- Hobsbawm, Eric. 1994. "The Nation as Invented Tradition."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eds.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varsson, Søren. 2008. *Creating Laos: The Making of a Lao Space between Indochina and Siam, 1860-1945*. Copenhagen: NIAS Press.
- Jory, Patrick. 2003. "Problems in Contemporary Thai Nationalist Historiography." *Kyoto Review of Southeast Asia*, 3. http://kyotoreview.cseas.kyoto-u.ac.jp/issue/issue2/article_251_p.html (accessed August 31, 2012).
- Le Boulanger, Paul. 1931. *Histoire du Laos Français*. Paris: Librairie Plon.
- Maha Sila Viravong. 1964. *History of Laos*. New York: Paragon Book Reprint Corp.
- Manich, M. L. 1967. *History of Laos*. Bangkok: Chalermit.
- Mayoury & Pheuiphanh Ngaosyvathn. 1989. "Lao Historiography and Historians: Case Study of the War between Bangkok and the Lao in 1827."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20, No. 1, pp. 55-69.
- Mayoury Ngaosyvathn and Pheuiphanh Ngaosyvathn. 2004. *Paths to Conflagration: Fifty Years of Diplomacy and Warfare in Laos, Thailand, and Vietnam, 1778-1828*. Reprinte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ayoury and Pheuiphanh Ngaosrivathana. 2010. *Chao Anou (1767-1829), The Lao People, and Southeast Asia*. Viangchan: Kasouang Thaleng Khao Lae Vatthanatham.
- Rehbein, Boike. 2007. *Globalization, Culture and Society in Laos*. Abingdon: Routledge.
- Rong Syamananda. 1981. *A History of Thailand*.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 Schultze, Michael. 1994. *Die Geschichte von Laos*.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 Vatthana Pholsena. 2004. "The Changing Historiographies of Laos: A Focus on the Early Period."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35, No. 2, pp. 235-259.
- Vientiane Times*.